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91

JCCT 2023-3-11

- 조선 여성이 누린 삶, 內的 自我境界의 體現
- 혜원의 「傳神帖」으로 보다

**The realization of the inner self of Chosun dynasty's women-Be
blessed life with Chosun Dynasty women, see the life of a Chosun
Dynasty women as a picture of Hyewon**

권윤희

Kwon Yun Hee

요약 인간의 자아경계는 개인마다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를 체현하는 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누리는 삶을 영위한다고 여긴다. 곧 긍정을 지향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삶을 긍정하는 자세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다. 내적 자아경계의 체현은 곧 긍정의 지향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결국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여준다. 자아경계의 체현은 보람 있는 삶을 도모함으로써 가능하다.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특히 이는 우리 옛 선인들이 활동하였던 조선시대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는 특히 성리학적인 사상체계 속에서 문인사대부가 중심이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사회생활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은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혜원 신윤복(?-?, 이하 '혜원')의 「전신첩」에는 우리 선인들이 누렸던 여러 풍류의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풍류의 현장에 진출하여 도모했던 삶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곧 누리는 삶이다. 즉,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었으며, 피동이 아니라 갈고닦은 재능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사회참여였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에 앞서 삶의 현장에 진출한 모습이다. 곧 시대에 앞서가며 원하는 삶을 도모하였던 조선 여성의 자아 체현의 모습이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자아경계를 체현하였다.

주요어 : 혜원 신윤복·전신첩·조선·여성·행복·사회참여·자아경계·체현·누림

Abstract Genre paintings, which describe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has lifestyle and Pungnyu of our ancestors. Pungnyu is aesthetic consciousness and a way of lives. The culture of Pungnyu is a kind of art boundary that combines high spirits and art. The Pungnyu is an icon of Korean culture, realization of taste, and happens through “stroll”, which means the walking peacefully, and “sightsee”, which means go sightseeing. It shows through the rambling and the excursion. Hyewon's 'Jeonsincheob'('傳神帖', a kind of spirit transferred drawings book) is a genre painting which represents Pungnyu and shows various activities at that time. Therefore, we can understand our own spirit and soul through appreciating his paintings. Hyewon's 'Jeonsincheob' has three special features. Firstly, it is the symbol of Korea traditional Pungnyu. Secondly, it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the East art. Lastly, Hyewon's 'Jeonsincheob'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glocalism, which means the combination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nd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ion of the center=the periphery, the globalization=the Korean wave, the universality=the particularity. Hyewon's 'Jeonsincheob' has aesthetic boundaries. One aims at individual pleasure. Another aims at harmony with its natural environment in which you are. Also, it can be considered as the boundaries of enjoying together which aims at harmony with social environment among group members.

Key words : Women·happiness·participation at the society·tender affection· be blessed·Hyewon shin yunbok

*정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제1저자, 철학박사) Received: January 17, 2023 / Revised: February 28, 2023

접수일: 2023년 1월 1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8일

Accepted: March 8, 2023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Corresponding Author: unikwon@hanmail.net

Dept. of Minerv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서론

본 연구는 우리 옛 여성들의 삶을 내적 자아경계를 체현하며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함이다. 이를 혜원 신윤복(??, 이하, '혜원')의 풍속화첩인 「傳神帖」('혜원 「전신첩」'(간송미술관소장)은 1첩 30면으로, 크기는 28.2 X 35.2cm 이다. 재질은 종이 바탕에 담채로 그려져 있다. 이 화첩도 일본에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오사카에 있는 고미술상에서 구입하여 새로 표구하였는데, 이때 오세창이 표제와 발문을 썼다. 1970년 12월 30일 국보 제135호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풍류 문화가 많이 담겨있다. 특히 유가의 문인 사대부 중심 시대에 삶의 현장에 진출한 여성들의 모습도 담겨있다. 여성들이 시대를 앞서가며 삶을 누리는 시각으로 고찰은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는 곧 우리 문화를 보는 본질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현실 참여적인 삶은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었으며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모습이다. 이는 곧 시대에 앞서서 누리는 삶을 살아온 여성들 모습이다. 이를 통하여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을 「傳神帖」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내적 자아경계의 개념

1. 자아경계의 함의

자아경계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경계이다. 자아경계의 도모와 시도는 자신의 굳건한 신념과 지속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다.

인문주의 심리학에 큰 공헌을 한 20세기 초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헤럴드 매슬로(1908~1970, Abraham Harold Maslow)는 일찍이 욕구 단계설로서 인간의 행동을 말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욕구에 바탕을 두고 동기에 의해 유발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존재로 이해하고자 인본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피라미드 모형을 띄고 있는 욕구에 대한 5단계의 위계 이론이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

소속과 사랑의 욕구 '4단계 '자아존중감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 욕구')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이 모두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은 스스로 육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최고가 되려는 욕망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일찍이 노자는 내재적이며 초월적인 자아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즉 현상과 실재의 경계에서 현상의 안과 밖을 관통하며 응시하는 관점이다. 노자는 허정의 자아, 무위의 도와 덕을 인식하는 유무위의 자아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자아에 대한 개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자신에 대해 걱정할수록, 자신에게 얽매일수록, 자신의 삶을 아낄수록 인간은 약해지고 자유에서 멀어진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할수록, 덜 얽매일수록, 덜 아낄수록 인간은 강해지고 자유로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끝없이 외부의 요인과 소통되고 있다. (최명기, 『작은 상처가 더 아프다』, 알키, 2015.)

자아의 경계는 곧 자존감이다. 자아경계가 약한 사람은 자존감이 희미하고 자아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자존감이 뚜렷하다. 자존감이 뚜렷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쉽게 선택하여 이를 성취한다. 그는 자아경계가 강해 타인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의 자아경계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는 다양화되어 우리의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이를 결정한다. 특히 여성은 자기 성장과 완성, 독립성 등에서 남성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는 인간의 심리발달 기준은 주로 남성에게 두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아경계는 곧 자존감으로 자아경계의 필요성은 곧 자존감이 필요함을 말한다. 자존감의 필요성은 곧 자존감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자존감 강화는 곧 여성으로서 누리는 삶을 유도할 수 있다. 여성의 자아경계는 주로 여성으로서 누리는 삶을 영위하였을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자아경계 형성 여부는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척도의 상징이다.

3. 자아경계의 확충

자아경계의 확충은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자아경계의 확충을 이룰 수 없다. 자아경계의 확충은 자아를 초월한 모습으로까지도 나아가게 된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생의 향로이다. 즉, 최종적으로 자아의 초월은 곧 자아경계의 확충이다. 자아경계의 실현은 곧 창의 능력을 담보로 한다. 창의 능력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다. 주어진 여건이 바뀌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력을 통해 자아실현의 경향성이 확장되고, 자아실현으로 완성된다.

창의성은 곧 독창성으로 세상에 없던 것을 발명하는 것이나 아무도 몰랐던 것을 찾아내는 발견이다. 또한 창의성은 차별적 창의성이며, 공감적 창의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독창성만 추구하다 보면 공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 없던 것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적 창의성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독창성과 공감적 창의성이 결합이 되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나아가 리더적 창의성과 적응적 창의성과 포함된다면 자아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초월적 삶은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세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물질적 욕망과 죽음의 변뇌에서 벗어나 초연한 삶을 지향한다. 이는 곧 자아경계를 확충시킨 결과이다.

III. 혜원 「傳神帖」의 풍류적 심미경계

1. 예술의 풍류미학

혜원의 「전신첩」에는 신분과 나이·성별을 초월하여 행락을 통하여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선인들이 즐긴 풍류의 삶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가야금이나 생황, 거문고와 같은 악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노래와 춤뿐 아니라 詩會나 雅會의 정경도 담겨있다.

여기에서 예술적인 풍류미학을 보여주는 그림은 <노상탁발(路上托鉢)>·<쌍검대무(雙劍對舞)>·<상춘야흥(賞春野興)>·<연당야유(蓮塘野遊)>·<주유청강(舟遊淸江)>·<납량만흥(納涼漫興)>·<쌍육삼매(雙六三昧)> 등이 있다. 이는 곧 노래와 춤과 시회의 정경으로 우리

선인들의 조화로운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서로 조화를 지향하는 同樂의 경계이다. 어울림의 풍류는 자연과 조화에도 있고 사람과의 조화에도 있다. 즉, 이는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선인들의 모습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도1>의 <연당야유(蓮塘野遊)>이다. 여기의 세 쌍의 인물은 연꽃이 핀 어느 후원의 연못가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한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 가얏고 소리를 감상하고 있으며 서 있는 선비



그림 1. <연당야유> 국보 135호, 35cm×28cm, 간송미술관 소장
 Figure 1. <yundangyau>, national treasure 135, 35cm×28cm

도 있다. 화제는 ‘자리에는 손님에 항상 차 있어도 술 단지에는 술이 비지 않네.’(‘座上客常滿 酒中酒不空’ = 앞의 ‘酒’자는 ‘樽(준)’의 오자임)이다. 연당에 핀 연꽃은 청향이 되어 가얏고 소리의 청아함과 앙상불을 이루고 있다. 축 늘어진 소나무 가지는 아름다운 노닐을 어루만져 주듯 늘어져 있다.(권윤희, 「혜원 전신첩의 글로컬리즘적 고찰」 『동양미술』, 동양예술학회, 2018, p.15.) <연당야유>는 선경에 가서 가야금과 같은 음악에 기대어 노니는 우리 선인들의 풍류미학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행락의 풍류미학

혜원의 「전신첩」에는 행락의 풍류미학도 담겨있다. 행락은 곧 소요와 유람·답청 등이 있다. 이 「전신첩」에서 행락을 보여주는 그림은 <연소답청(年少踏淸)>·<주유청강(舟遊淸江)>·<납량만흥(納涼漫興)>·<쌍육삼매(雙六三昧)>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도2>의 <주유청강(舟遊淸江)>은 행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이는 배를 타고 맑은 강에서 즐기는 풍류이다. 푸르른 강가에 가서 하루를 만끽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풍류를 즐기고 있다. 대금을

부는 여성과 생황을 부는 여성은 이 풍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두 젊은 선비는 주인공 같다. 혜원은 이를 두고 ‘한 가락 대금소리와 늦은 바람 소리는 들리지 않고 흰 갈매기는 물결이 꽃을 이루는 곳으로 떨어지누나.’(一笛晚風聽不得 白鷗飛下浪花前)라 화제로 풍류를 즐기는 정경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신분의 귀천과 성별·노소를 초월하여 즐긴 행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화를 지향하는 同樂의 境界이다.

3. 춘의의 풍류미학



그림 2. <주유청강>, 국보 135호, 35cm×28cm, 간송미술관 소장
Figure 2. <juuchunggang> , national treasure 135, 35cm×28cm

혜원의 「전신첩」에는 특히 남녀간의 춘의가 담긴 그림이 많다. 이들은 주로 밀애·여숙·성애·밀회·욕정 등이다. 이를 보여주는 「전신첩」은 <단오풍정(端午風情)>·<계변가화(溪邊街話)>·<정변야화(井邊夜話)>·<문중심사(聞鍾尋寺)>·<춘색만원(春色滿園)>·<소년전홍(少年剪紅)>·<월하정인(月下情人)>·<월야밀회(月夜密會)>·<이부담춘(嫠婦耽春)>·<삼추가연(三秋佳緣)>·<무녀신무(巫女神舞)>·<이승영기(尼僧迎妓)>·<휴기담풍(携妓踏楓)>등이다.

이러한 춘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도3>의 <이부담춘>이다. 이는 두 여성이 짝짓기 하는 개와 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림이다. 이부(嫠婦)는 과부이다. 즉, 과부가 봄을 탐낸다는 것은 짝짓기하는 강아지나 새의 모습에서 읽혀진다. 두 여성이 앉아있는 소나무는 거의 죽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두 가지에 매달린 술잎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부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고사목이 될 듯 한 소나무는 소복 입은 여성의 자화상이다. 자연에서 봄은 생명이다. 생명의 발원은 짝짓기

를 통해서 이루진다. 소나무의 가지에서 보이듯 춘정은 아직도 남아있을 터이지만 짝이 없을 과부는 다가오는 봄은 호사이며 사치일 뿐이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춘정이 발동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순리이다. 혜원이 그린 것은 인간의 성정이다. 혜원은 짝짓기 하는 개를 통하여 여성의 봄을 그려냈다. 이부는 홀로된 몸으로 남겨진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이부담춘>은 짝짓기 하는 개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에서 순응해야 하는 것이 이부의 애처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獨孤는 獨樂의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감정이다. 그러나 獨孤도 독락처럼 개인 스스로의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으로 독락을 위한 요소이다. 이부(嫠婦)의 獨孤와 獨樂은 현실에서 적응 방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4. 기방의 풍류미학

혜원의 「전신첩」에는 기방이나 주점의 풍속을 그린 그림도 많다. 기방과 주점에서는 주로 음주나 유희과 가무등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기방무사(妓房無事)>·<청루소일(靑樓消日)>·<홍루대주(紅樓待酒)>·<주사거배(酒肆學盃)>·<유곽쟁웅(遊廓爭雄)>등이다.



그림 3. <이부담춘>, 국보 135호, 35cm×28cm, 간송미술관 소장
Figure 3. <ibutamchun> , national treasure 135, 35cm×28cm

이 가운데 <도4>의 <주사거배>는 술집에서의 잔을 드는 것이다. 무대는 선술집이다.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고 술병을 끌어안고 맑은 바람을 맞이한다네.’(學盃縣皓月 抱擁對清風)의 화제가 없으면 난장판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술잔이 놓인 곳은 부뚜막 같기도 하고 술을 담아둔 술독 같기도 하다. 주모가 따라준 술맛이 이 선술집에 주당들이 모여들게 하는 이유로

보인다.



그림 4. <酒肆擧盞>, 국보 135호, 35cm×28cm, 간송미술관 소장
 Figure 4. <jusagubae> , national treasure 135, 35cm×28cm

<도4>의 <주사거배>는 함께 어울려 같이 정겨운 봄날의 하루를 즐기는 同和의 경계이다.

獨樂의 경계가 인간 개개인의 즐거운 감정을 추구한 경계라면 동화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얻어지는 경계이다. 同和의 境界는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로 일체화이며 어울림이다. 이와 같이 전신첩의 <주사거배>는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보여준다.

5) 기타 풍류미학 경계



그림 5. <路中相逢>, 국보 135호, 35cm×28cm, 간송미술관 소장
 Figure 5. <rojungsangbong> , national treasure 135, 35cm×28cm

<표모봉심(漂母逢尋)>·<노중상봉(路中相逢)>·<임하투호(林下投壺)>은 기타의 풍류미학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도5>의 노중상봉(路中相逢)은 길 위에서 네 남녀가 만나는 그림이다. 두 남녀는 세속을 벗어난 선남선녀의 경계이다. 그냥 쉬 넘기는 그림이라 했는데 이 그림의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색으로 보아 장례를 마친 후의 그림 같이 느껴진다.

이와 같이 「전신첩」에는 다양한 미학경계의 풍속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IV. 조선 여성의 내적 자아경계의 체현

1. 누리는 삶 지향

1) 긍정의 지향

인간의 자아경계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서로 다른 바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를 체현하는 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자아경계를 형성하여 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통 누리는 삶을 영위한다고 여긴다. 이는 곧 그가 도모하는 바를 지향하고, 또한 이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자세는 21세기 시대정신과도 부합이 된다. 긍정의 지향은 곧 행복의 만깎으로 가는 바탕이다.

혜원의 「전신첩」에는 이러한 우리 선인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곧 누리는 삶이다. 이들의 삶이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었으며 피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참여이다. 누림은 보편적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

<도1>의 <연당야유(蓮塘野遊)>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여성은 당대의 여성과 다른 삶을 살았다. 문인 사대부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 이들은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시대를 앞서간 의식과 철학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들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사회참여를 하였다. 이는 곧, 당대의 보통 여성과 다르게 새로운 의식과 철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기방의 여성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대의 언어로 본다면 연예인의 전형이다. 즉, 이들은 시대를 앞서간 예인이었다. 그들은 자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갈고닦은 재능을 바탕으로 이러한 삶을 개척하였다.

이들은 사대부의 시중을 드는 것으로만 인식이 곧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자아경계의 체현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도모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자아경계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당대 여성의 사회참여라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누림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애뜻함이라고 하는 고차원의 시각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충만이다. 이는 곧 배려이면서 측은지심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누림은 곧 삶의 충만이다. 누림은 곧 내적 충만이다. 긍정의 시각은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축복이다.

나아가 애뜻함의 감정은 화·로·애·락의 모든 감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애뜻함은 화·로·애·락의 中節을 가능하게 하는 스위치의 역할과 같다. 또한, 애뜻함은 공감과 배려로서 자신을 치유하는 핵심 감정이다.

이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억제된 엄숙주의 일상에서도 절제와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애뜻함이 핵심 감정으로서 내적 긴장과 감정 조절의 역할을 하는 표면장력과 같기 때문이다. 슬프되 상처받지 않는(哀而不傷) 것도 애뜻함이다. 자신을 견인하여 자신을 슬프게 하는 대상과 슬퍼하는 자신을 배려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정신경계는 곧 인간 소외와 상실 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성은 개인의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 기질에 따라 다르다. 내면에 있는 감성의 확장은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청대 예술가였던 석도(石濤, 1641~1720)는 예술의 심미원리를 資任의 철학으로 풀이한 바 있다.(권윤희, 「感性知能을 통한 東洋藝術의 審美的 接近- 石濤畫論의 ‘資任’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40호, 2018) 資任은 곧 예술가가 가지는 감성과 개성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自任이다. 이를 통하여 더욱 넓은 시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또한 실현하는 경계이다. 이는 곧 혜원의 「전신첩」을 누림의 미학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 살았던 옛 여성은 내적 자아경계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누림의 삶을 향유하였다.

2) 추구의 삶

풍류의 확산과 보편화는 유가의 예악 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자연미·흥·멋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는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한 요소이다.

자연미는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다. 풍류의 확산은 미적 대상이나 미적활동의 다양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산하의 자연에 대한 미적인 접근과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풍류문

화가 되었다.

또한 흥은 감흥·흥취로 우리 민족이 가진 본질이다. 흥은 풍류를 즐기는 원천이다. 음주 가무도 흥의 발산이며 풍류의 일종이다. 멧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민족의 미적 체험에서 얻어졌다. 멧에 대한 취미성과 감수성은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멧은 모든 예술의 중심 개념이며 이상 개념으로 究竟的인 기능을 발휘하는 미적 범주이다. 멧의 지향은 우리의 미의식이며 예술의 바탕으로 풍류예술을 담기 위한 요소이다.

혜원의 「전신첩」에는 이러한 우리 풍류 모습이 담겨있다. 곧, 우리 미의식의 본질이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었다.

추구하는 삶은 곧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누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은 곧 자신이 원하는 경계를 추구하는 바 삶에 있다. 이는 곧 자아경계의 체현을 위한 방법이다. 특히 <도2>의 <주유청강(舟遊淸江)>은 신분을 초월하여 대금과 생활으로 가락을 즐기고 있다. 뒤 배경은 푸르름을 견인하고 있으며 노 젓는 인물뿐 아니라 대금을 부는 인물과 생활을 부는 여성은 풍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여성이 추구하는 삶은 곧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자기식의 사회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 같은 현실 참여를 통하여 자아의식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였다. 이는 조선 여성의 내적인 자아경계의 체현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이는 곧 우리가 누리는 삶의 바탕이었으며 시대를 앞서간 조선 여성의 상징이었다.

2. 보람의 삶 도모

1) 시대정신의 초월

혜원의 「전신첩」은 詩會나 雅會·妓房의 春意·남녀간의 밀애·대자연에서의 行樂등이 드러나 있어 우리의 풍류문화를 보여주는 미학적 특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가의 풍류문화가 우리 특유의 자연미·흥·멋이라는 개념으로 담겨있다. 이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유가의 禮樂文化이다. 이는 주로 游於藝·興於詩·成於樂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유가 예술경계의 지향치이며 유가미학에서 고찰하여 볼 수 있는 풍류적 요소이다. 당대 우리의 풍류문화는 이와 같은 유가의 예악 중시 사상의 확산과 보편화에 따라 일어났다.

유가에서 풍류의 원형은 風乎舞雩이다. 이는 자연과 거스름 없이 어울려 지내는 바에 있다. 風乎舞雩의 확

산은 선비들에게는 아회나 詩會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격조를 동반하는 풍류활동이다. 詩會는 詩文書畫의 풍류이면서 선비들의 향유물이었다. 문인들은 시를 통하여 서정을 교류하고 삶의 격을 높였다. 詩會는 풍류 문화의 확산과 보편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유가의 禮樂文化의 추구는 차원과 품격이 높아 우리의 정신세계의 단면을 한층 상승시켜 놓았다.

「전신첩」에 보이는 이와 같은 풍류문화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초월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내적 자아경계의 체현은 누리는 삶의 지향뿐 아니라 보람 있는 삶을 도모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시대정신을 초월하는 의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고정된 시각이라면 변화가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문인사대부 중심의 성리학적인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성리학적 이념사회를 초월하여 여성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삶을 도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정신을 초월하는 의식의 전환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혜원의 「전신첩」에 보이는 여성의 현실참여는 곧 자신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이는 자신의 재능을 발산하는 터전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선구적으로 삶을 영위하였다. 이들의 내적 자아경계는 이와 같이 보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곧 그들 내적인 자아경계를 체현하기 위한 마당이었다.

2) 가치의 창조

현대 문명의 이해는 융합과 소통에 있다. 우리의 풍류 문화는 최근 한류로 발현되는 우리 예술문화의 원형이다. 우리 풍류 문화는 세계화 과정과 지역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서 탈중심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전신첩」의 심미경계는 개개인의 즐거움을 지향하는 獨樂의 境界이며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지향하는 同和의 境界이다. 또한, 집단 구성원사이의 사회 환경과 조화를 지향하는 同樂의 境界가 담겨있다.

이러한 고품격의 정신경계가 세계와 소통함으로 공감될 수 있는 우리 문화코드인 한류의 원형이 되었다. 한류의 본질은 우리의 예술적 풍류와 우리의 풍류적 예술의 결합이다

「전신첩」에 나타난 獨樂·同和·同樂의 審美境界는 우리 풍류의 본질이다. 이러한 「전신첩」에 담겨있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경계 속에 있다. 이들의 모습은 곧 내적 자아경계를 체현한 모습이다. 이는 곧 보람 있는 삶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대정신을 초월하고 도모하고 있는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의 옛 조선 여성의 삶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서 그들의 삶을 행복과 만족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조선 여성의 삶이 행복을 누린 삶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 옛 여성의 사회참여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가치 창조의 삶은 곧 보람이 있는 삶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시대를 앞서 원하는 삶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구이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각각 내적인 자아경계를 체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인간의 내적 자아경계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체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개개인마다의 자아경계 체현은 삶을 누리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곧 대개 긍정적인 삶의 지향을 통하여 원하는 삶의 향유에 따라 있다. 긍정의 지향은 곧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혜원의 「전신첩」에 드러난 여성들의 모습은 곧 당대 여성들의 사회참여이다. 우리 옛 선인들이 활동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인 사상체계 속에서 문인사대부가 중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리학적 이념사회 속에서 여성이 신분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펼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도모는 그만큼 시대정신을 초월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혜원의 「전신첩」에는 이러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들의 삶은 곧 당대 처해진 환경에서 사회진출이며 사회참여의 모습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삶은 곧 자신의 자아경계를 체현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들의 지향 세계는 곧 긍정의 지향과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 누리는 삶을 지향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누리는 삶을 영위하였다. 이는 곧 내적인 자아경계를 체현한 단면이다.

Reference

- [1] shin eunhyung, 『Pungryu』, Bogosa, 1999.
- [2] Choi myungki, 『small injury is more painful』, Algi, 2015.
- [3] Kwon yunhee, 『The aesthetics approach of eastern arts via Emotional Intelligence -focused on duty of artist's accumulated talents(責任') of Stao's paintings theory-』 『oriental art』 Vol 40, oriental art academy, 2018
- [4] Kwon yunhee, 『The Glocalological review for Hyewon Yunbok, Shin's 'Jeonsincheob'』 『oriental art』, oriental art academy, 2018.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2021S1A5B5A1705
682에 의한 연구 논문입니다.